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100주년기념
창작오페라 “구레네 시몬”

(SIMON VON KYRENE) 7부작 - 초연

2009년 9월 27일(주일) 오후 7시 안동교회 예배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27 Tel:733-3395, Fax:733-3398 www.andong-ch.org)

안동교회 창립100주년과 창작오페라의 의미

1. 교회는 복음성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중시하던 교회음악의 보존과 대안을 제시하여 균형과 조화를 모색해야한다.

안동교회는 창립 이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의 선도적으로 예배형식과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개선하여 왔다. 음악의 예만 들더라도 70주년 당시에 국립교향악단의 완전한 편성으로 Charles Gounod의 “장엄미사”를 연주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때에 안동교회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80주년(1989년)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작곡가 CHRISTIAN DAVID의 오페라“엠마오로 가는 길”을 작곡가의 연출과 지휘로 공연하여 교계와 음악계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를 계기로 몇몇 교회로부터 이 오페라의 제작 경위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악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연주자체는 1회성에 불과하지만 파급효과를 본다면 교회음악의 새로운 장르 개척의 연속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

2.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음악의 대표적인 몇 가지 형식(모테트, 칸타타, 오라토리오, 수난곡, 미사곡 등)의 범위 내에서 선곡하여 연주를 많이 하였다. 대부분이 정적인 감상구조를 가진 이런 형식의 연주형태는 청중이 이미 연주곡의 내용을 아는 것을 전제로 오로지 귀를 통해서만 이해하고 감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페라는 연주의 성격상 상황에 맞는 연기, 분장, 의상, 조명 등 무대장치가 있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제작과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충족시켜주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다. 특히 성서에서 주제를 설정하는 교회오페라의 경우 복음적이고 교훈적이어서 극적 효과는 일반오페라보다 훨씬 크기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할 새로운 대안이다.

3. 현대오페라에서 무대세트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조명과 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둔다.

심지어 작곡가는 음악조차도 줄거리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아리아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연출가는 연주회장 전체를 무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 교회에서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가곡을 작곡한 과거의 위대한 음악가들에 대한 빛 갚음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다.

르네상스시대의 중세시대의 그레고리안찬트나 작곡가 팔레스트리나, 바로크시대의 바하, 헨델, 비발디 등과 고전시대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시대의 슈베르트, 멘델스존, 브루크너, 브람스, 베르디, 구노, 프랑크 등 수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찬양으로 절기 또는 특별 기념행사 찬양으로 많이 연주하고 있다. 이 위대한 작곡가들은 당시대의 현대 음악가들이었고 때로는 일반인들이 그들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여 비판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통하여 천상의 음악을 경험하고 상상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100주년을 맞은 안동교회가 비록 현대의 교회음악이 난해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미래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유산으로 남겨주는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회와 관련된 작곡가들을 통하여 미래의 교회음악을 계속 양산 발전시키고 이 운동이 한국교회의 예배와 찬양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STAFF AND CAST



작곡 : 양기승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비엔나 국립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전주대학교 음악과 교수, 안동교회 성가대 지휘자 역임

관현악곡, 합창곡, 실내악곡 등 작품 발표

다수의 오페라 지휘 및 국내외 교회 극음악 제작 참여



대본 : 헤르베르트 포크(Text von Herbert Vogt)

이미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교회오페라대본 작가이다. 빈국립대학교에서 음악학과 독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페라는 물론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 많은 대본을 발표하였다.



지휘 : 최덕천

안동교회 찬양대 지휘자



연출 : 장수동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연출을 거쳐 이태리 라스칼라극장아카데미아에서 오페라연출을 전공하고 문예진흥원 해외파견예술인으로 선정되어 미국 브루클린극장, 헝가리 국립오페라극장에서 무대연출을 수학하였다. 그랜드오페라 <모세>(한국초연)를 비롯하여 <카르멘>, <세빌리아의이발사>, <라트라비아타>, <토스카>, <나비부인>, <아이다>, <루치아>, <사랑의묘약>, <라보엠>, <카발레리아루스티카나>, <돈조반니>, <코지 판 투테>, 등 70여편과 창작오페라 <안중근>, <백범김구>, <줄리아의 순교>, <사랑의빛>, <순교자>, <이순신>, <에스터>, <심청>등 20여편 연출. 특히 한국소극장오페라 운동을 주도, 제1회 오페라대상 연출상 수상. 현재 서울오페라앙상블 대표 및 예술감독.



Simon(바리톤) : 조청연

서울대학교음악대학성악과 졸업. 밀라노 국립음악원 졸업. `Pia Tebaldini` 국제 콩쿨 1등/ `Principessa Cristina Trivulzio di Belgioioso`, `Maccagno` 국제콩쿨 3등, Sanremo, Budrio 등 다양한 콩쿨에서 입상. 오페라 `라보엠` `피가로의 결혼` `팔리아치` 라트라비아타 리골렛토 등 이탈리아에서 수십회 공연/ Simione Pallazzo dei Congressi 마리아 칼라스 기념 음악회 초청공연/ 레코 극장 Verdi 서거 100주년기념음악회 초청공연.



Lea(메조소프라노) : 류현수 (mezzo soprano)

한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국립음대 (UdK) 오페라과 석사 (Opern-Diplom Studium) 졸업. 독일 뤼벡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과 솔리스트 과정(Solisten klasse) 졸업. 일 포셀 성악콩쿨 2004 대상 및 마리팀 성악콩쿨 1위와 관객상. 이탈리아 가에타노 프라스키니 국제 콩쿨 1등 없는 2위, 줄리엤타 시모나토 국제 성악콩쿨 2위, 살레 국제 성악콩쿨 3위. 바하 “마태 수난곡” “요한 수난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헨델 “메시아”,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 “코랄 환타지” 베르디 “레퀴엠”, 생상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구노 오라토리오 “테 데움”, 오페라 “Cosi fan tutte” 등 오페라 주역과 알토솔리스트로 스위스, 일본, 캐나다, 독일 등지, 국내에서 출연



Nathan(테너) : 장신권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수료.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졸업. 베르디 국립음악원 조교과정이수. 베스까라 아카데미, 파르마 아카데미, 휴고볼프 아카데미졸업. 이태리 티토 스키파 국제성악콩쿨입상, 안젤리카 카탈라니 국제성악콩쿨 1위입상. 독창회 개최, 40여편의 오페라출연 및 메시아, 천지창조, 엘리야, 에스더, 테데움 등 수십회의 오라토리오, 미사 연주,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300여회 음악회출연,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 초청연주, 현, 상명대학교, 한세대학교, 삼육대학교 출강.



Mirjam(소프라노) : 이영숙

상명대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이탈리아 페스카라 벨칸토 아카데미아 졸업. 8회 독창회 및 구노 장엄미사,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베르디 레퀴엠, 헨델 메시아 등 연주.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베르테르” ‘마님이 된 하녀’ 등 주역 출연. 현, 여성성악앙상블 “fp 뮤젠” 단원. 계원예고, 한세대, 상명대 외래교수, 이탈리아 가곡 연구회, 이탈리아 성악동우회 회원.



Euphilos(테너) : 이상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비엔나 국립음악원 가곡과 오라토리오 졸업 및 오페라과 수석 졸업. 비엔나 국립 오페라단 단원 역임, 독일 뮌헨 ZBF 소속, 루치아 포프, 벨베데레, 데뷔 인 메란 등 유럽의 국제콩쿨 입상 및 특별상 수상, 비엔나 황금홀에서 바하 수난곡, 크리스마스오라토리오 에반겔리스트 연주, 수회 독창회 및 국내외 오페라, 오라토리오 다수 연주중. 현재 나사렛대학교 성악학과장, 쏘리스트앙상블, 이 마에스트리 활동 중.



Salomo(베이스바리톤) : 이진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로버트 슈만 음대 오페라과, 마인츠 대학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음대에서 Konzertexamen 전문 연주자 과정. 이태리 몬테 코르비노 로벨라 디 살레르노 국제콩쿠르, 독일 노이슈타트 국제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 <잔니 스키키>, <어린이와 마법>, <마술피리>, <에프네긴 오네긴>, 몬테 베르디의 <울리체의 귀환>, <돈 죠반니>, <모세>, <노르마>, <라인골트>, 몬테 베르디의 <IL burbero di buon Cuore> 등 오페라와 독일, 헝가리 등지에서 연주활동.



로마군인 1 : 손민호



로마군인 2 : 조정원



오르간 및 연습반주: 한지윤(안동교회 오르가니스트)

성결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 과정 및 최고 연주자 과정(KA, KE) 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Le Diplôme de spécialisation) 졸업. 제53회 뉘른베르그(Nürnberg) 국제 오르간 콩쿨 1위 입상.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전공실기 강의. Denzlingen St. Georg교회 오르가니스트. BR(바이에른 방송) 연주 실황 방영, 다수의 실내악 연주 및 음반 제작.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등에서 다수의 초청 독주회. 현재, 연세대, 성결대, 나사렛대 출강/ 안동교회 오르가니스트.

반주: 소리얼필하모닉 체임버 오케스트라(단장:박상근 악장:고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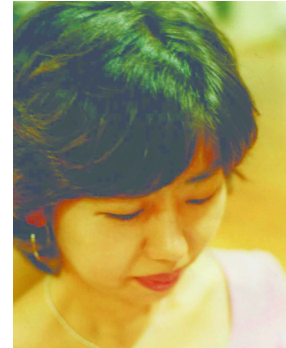
조명: 김호진



무대: 이태원



분장: 김선희



의상: 박정원

군중 합창 : 안동교회 찬양대



제1소프라노 정화성



제1소프라노 윤순미



제1소프라노 오금숙



제1소프라노 반나영



제1소프라노 한수인



제1소프라노 박은혜



제2소프라노 송숙연



제2소프라노 최예순



제2소프라노 문애자



제2소프라노 황재금



제2소프라노 이영순



제2소프라노 윤수정



제2소프라노 유경선



제1알토 지윤희



제1알토 양은선



제1알토 정영란



제1알토 최현욱



제1알토 차은미



제1알토 김인자



제2알토 김종순



제2알토 민경숙



제2알토 오순원



제2알토 김명인



제2알토 정장미



제1테너 박현웅



제1테너 정성철



제1테너 방무현



제1테너 김영고



제2테너 김성렬



제2테너 윤효섭



제2테너 최종천



제2테너 오정현



제1베이스 윤명렬



제1베이스 유왕재



제1베이스 이삼형



제1베이스 민동현



제1베이스 우왕섭



제1베이스 김기만



제2베이스 임종대



제2베이스 백병기



제2베이스 방승주



제2베이스 조주영



제2베이스 조현호



제2베이스 최종원



제2베이스 권순성

등장인물 성격

구레네 시몬 (Simon von Kyrene - 바리톤 Bariton)

내성적이고 용의주도함. 유대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을 고수하지만 십자가 사건과 연계된 본인의 행적에 관해 끝없는 반추를 거듭 하고 있음.

레아 - 구레네 시몬의 아내(Lea, seine Frau - 메조소프라노 Mezzosopran)

적극적인 현실주의자. 현재의 본인 삶이 더없이 소중한 현실 안주의 소망이 늘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친구 Nathan부부의 전도를 완강히 부정하지만 마지막 반전에서는 오히려 앞장 서 Simon을 이끈다.

나단 (Nathan - 테너 Tenor)

신앙과 사명으로 뭉쳐진 초대교회 신자. 논리적 단계를 밟아 Simon부부에게 다가 간다. 끈기 있는 설득에 이은 종반의 결정적인 독백으로 그들을 감동시킨다.

미리암 - 나단의 아내 (Mirjam, seine Frau - 소프라노 sopran)

조금은 서두르는 열정적인 신도. 안타까운 심경으로 직설적 권유를 계속한다.

유필로스 - 그리스 상인 (Euphilos, ein Grieche - 테너Tenor)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낙천적인 그리스 상인. 처음에는 비판적 이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유대인 예수를 바라보지만 바울의 설교에 동감하며 초대교회 이방인신자의 반열로 들어선다.

솔로몬(Salomo - 베이스바리톤 Bassbariton)

줄기가 뚜렷한 성격적 저음 역을 노래한다. 꿈 장면의 환상적인 분위기 표현에 중점.

로마군인들 (Soldat - 연기자) 자유로운 대사와 연기로 극적분위기 전환에 도움

군중들 - (Volk 안동교회 찬양대- 혼성합창 gemischter Chor)

줄거리

전 7장으로 구성된 이 교회오페라는 종려주일에서 성령강림절 직후까지의 유대인 두 부부와 그리스 상인의 애기가 주축이 되어 전개된다.

유월절 장사 대목을 찾아 예루살렘을 찾아 온 그리스 상인 Euphilos는 뜻밖의 불황을 맞이하며 당황해 한다. 군중들이 환호하며 뒤따르는 예수 때문이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낙천가인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들 군중을 구경하고 있다. 그리고 이내 기이한 기적 애기에 호기심이 발동 된다.

그 군중 틈에서 겨우 빠져 나온 Simon과 그의 아내 Lea가 한심스러운 듯 군중을 비웃고 있는데 친구 부부 Nathan과 Mirjam이 등장해 바로 예수가 구세주로 왔음을 증거하며 설득하고자 한다. 그러나 Simon부부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한다.

이내 성 금요일.

성난 무리로 돌변해 버린 군중을 바라보며 Euphilos는 의아해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나타나고 그가 결국 지쳐 쓰러지자 구경하며 따라가던 Simon에게 로마 병정이 외친다. “대신 네가 저라 골고다까지” 이 운명적 해후의 반주로 오페라 중반 이후가 전개 된다.

말 한마디 없었던 예수와의 만남이 그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의 아내와의 갈등이 벌어지고 바로 그 즈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다.

또 다시 증인으로 나선 Nathan 부부가 그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로의 입교를 간곡하게 권유한다. 물론 Simon 부부의 비판적 반론은 그칠 줄 모른다.

두 번째 간주곡에 이어지는 제 6장은 Simon의 꿈. 솔로몬 성전 건축 현장에서 노예들 틈에 끼어 Simon도 목재를 나르고 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만들었던 나무, 솔로몬 성전의 들보가 될 그 삼나무를 그는 피곤함도 잊은 채 희열에 겨워 나르고 있다. 마침내 솔로몬 성전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전면에 우뚝 선 솔로몬 대왕의 거대한 봉헌 노래가 중반에 이르자 Simon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마지막 장은 Euphilos의 신앙고백으로 시작되고 갑작스러운 로마군 중대장의 피살사건 소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 심각해 진 Nathan부부와 Simon의 열띤 신앙 논쟁이 고조에 이를 무렵 Lea가 겁에 질려 뛰어 나온다.

로마군 중대장 피살 범이 하필 Nathan의 집으로 피신했고 로마군들은 끝내 Nathan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는 충격적 소식을 전한다.

멀리 Nathan의 집 불길에 갈수록 또렷이 치솟아 오르는데 Nathan 부부의 초연한 기도가 시작된다.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우리 주님인 것을” 순간 Simon의 회심이 이루어진다.

Lea, Euphilos가 가세하며 결연한 고백의 노래를 부른다.

“이제 우리 함께 집을 세우세. Nathan의 집을, 그리고 우리들 마음의 새 성전을” 연이어 Nathan 부부, 군중의 아멘 합창이 고조되며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한다.

가사

<제 1장>

(유월절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거리, 예수가 행한 기적을 보고 놀란 군중들이 몰려 다니고 있다. 이들의 무리, 합창단이 교회 중앙 통로를 통해 제단 쪽으로 나아간다)

군중(합창) : 우리가 분명히 보았네. 앓은뱅이 그에게, 그가 말했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앓은뱅이, 그가, 일어섰네. 그대로 걸어갔네. 우리 분명히 보았네.

시몬 : 또 한사람 기적을 행하는 자로군.

레아 : 또다시 그에게 매달려 따라가는군.

레아, 시몬 : 제발 길이나 비켜요!

군중(합창) : 때가 이르렀도다. 세상 끝 날이 다가왔네. 세상 끝 날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레아 : 돌아서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시몬 :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 언제고 있는 힘을 다해

레아, 시몬 : 우리 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레아 : 율법도 성실하게 준행하네. 우리가 아는 한, 계명 따라서 어김없이.

시몬 : 또 기도하네. 우리들 옛 조상의, 우리들 조상의 하나님께

레아, 시몬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시몬 : 다행이야. 저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

하지만, 누구라도 저만의 생각을 가질 수야 있겠지.

군중(합창) : 선지자들 말한 이가 바로 이사람. 하나님 말씀 육신 되어, 이 땅위에

오셨네. 가난한자 위해 죄인들을 위해 구세주 오셨네.

레아 : 가난한자 죄인들을 위해?

시몬 : 죄인들이라.

레아 : 다행히도 우리들은 가난하지 않고

시몬 : 세리도 아니요 부도덕하지도 않아

레아 : 그러기에 우리는 돌아설 필요가 없네. 저들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네.

시몬 :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 상관이 없네.

(군인1, 2 등장, 군중들과 약간의 거리를 둔 채로)

군인 1 : 조심해, 저것들 언제 또 폭동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군인 2 : 골치 아픈 족속들

군인 1 : 한 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군인 2 : 언제 또 우리를 공격해 올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나.

군인 1 : 한심할 노릇이지.

군인 2 : 어휴, 언제쯤이나 저것들 인계하고 고향가게 되려나.

군인 1 : 우리 고향, 로마 말이야

군인 2 : 어? 재네들

(군중들 측면으로 퇴장하기 시작, 군인1, 2 따라 나간다)

시몬 : 몇 날 몇 년째,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레아 : 나사렛 예수.

시몬 : 언제나 같은 얘기, 회개하라.

레아 : 어디로부터 받은 권세인가. 우리들 다시 떼 지어 몰려가네.

시몬 : 떼 지어 몰려가네. 병자가 나음을 받고

레아 : 그래 나도 알아. 기적을 행하는 것.

시몬 : 그런데, 이러다가 어찌되려나. 하늘나라 얘기하던 그가 또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네.

레아 : 위험한 인물이야 서기관들도 수상히 여겨.

시몬 : 이러다가 결국 어찌되려나?

레아 : 다행이야 저들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니.

시몬 : 하지만 누구라도 저만의 생각을 가질 수야 있겠지.

(나단과 미리암, 무대 뒤 쪽을 바라보며 등장, 잠시 후 시몬과 레아를 보고 반갑게 다가선다.)

미리암 : 레아! 평강이 함께 하옵시라.

레아 : 미리암! 평강이 함께 하옵시라.

나단 : 구레네 시몬! 평강이 함께 하옵시라.

시몬 : 나단. 미리암! 평강이 함께 하옵시라.

시몬 : 저들이랑 함께 있었나?

나단 : 들어봐! 우리가 직접 보았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미리암 :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은 그들에게 나타나 그가 말했었네.

나단 :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따라했는데,

미리암, 나단 : 그물이 찢어졌네.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더라고.

레아 : 아마도.

시몬 : 원래 그가 노련한 어부였던 모양이지.

레아 : 바보 같은 시골어부들에 비하면.

나단 : 믿어줘! 그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네.

미리암 :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네.

나단 : ‘나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말했네.

시몬 :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혁명을 위한 동지를 모으겠다는 건가?

레아, 시몬 : 그렇게 되면 소요와 폭동이 온다.

미리암 :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네. 사랑의 하나님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에게 드릴
기도를.

미리암, 나단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네.
이름 거룩하게 하옵시고, 당신의 뜻 이뤄지이다.

미리암 : 선지자들 말한 이가 바로 이 사람.

미리암, 나단 : 하나님 말씀 육신 되어 이 땅위에 오셨네.

레아 : 하지만 서기관들의 얘기는 전혀 달라

미리암 : 알게 되겠지.

나단 : 언젠가는 모든 것을.

시몬 :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없네.

레아 : 우리와는 그 일이 상관없네.

미리암, 레아, 나단, 시몬 : 평강 하옵시라.

시몬 : 내 발에는 풍성한 과일이 열리고.

레아 : 그것들이 서기관 점령군에게 실려 가네. 그러니 우리와 친할 수밖에.

시몬 : 하지만 누구라도 저만의 생각을 가질 수야 있겠지.

군중(혼성합창) : 유월절이 이르렀도다. 보라, 주님오시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네.

나는 길ियो. 진리와 생명이니라.

호산나 높이 다윗자손께 호산나.

찬미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높은 곳에.

<제 2장>

(오이필로스 등장)

오이필로스 :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인? 그건 더욱 아니고,

그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리스의 장사꾼. 그래요 그저 장사꾼이래요.

하지만 그리스 유대인 로마인, 누구든 모두 내 장사의 상대.

그래도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면 언제고 장사재미 괜찮았는데,

올 해는 참 이상하네. 예수인가 누구인지 그 사람 때문에 온 성안이 소동이네.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며,

자기네 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구세주라 믿으며, 저토록 그를 따르고 있네.

하지만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곳저곳 떠돌이 장사꾼.

그리스인이지만, 어디나 똑같더라고요.

믿음과 미신 누가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저야 그리스의 신들을 존경하지요.

로마 신들도 존경하고, 이집트의 신들도.

저는 제법 알지요 여러 나라 여러 신들과 안면이 있어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유대의 신은 하나뿐이라네.

신들 옆에나 신들 위에 있는 하나가 아니라 오직 홀로 하나님.

홀로 있는 신이라네. 저들 유대인들은 그 신이 선택한 백성이라는데.
 하기가 나도 가끔은 그 신앙이 마음에 들어요.
 오직 하나의 신을 섬긴다는 신앙.
 어찌됐건 저 유대인, 자기들의 하나님이 택했다는 저들도 내 상대.
 하지만 그 누가 이 별난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
 바로 며칠 전 예루살렘. 그가 들어올 때에 주 예수 맞으라. 외치던 무리.
 그런데 지금 저들이, 바로 저들이. 그를 고소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여야한다고.
 누군가 군중들을 조종했겠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빌라도가 인도해버렸다고.
 십자가 치욕의 죽음을. 이 사람 나사렛 예수에게.

<제 3장>

(두 사람 로마 병정이 수리를 지르며 무리들을 이끌고 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진 채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데 군중들이 뒤 따르며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

군중(합창) : 저기, 저 꼴을 보라, 저를. 저자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인 1 : 자네는 저 백성 이해가 가나?

군인 2 : 한마디로 미친 것 들어야!

군인 1 : 일 천 개의 율법이 있으면 뭘 해? 하는 것들 좀 보라고!

군인 2 : 거기 비하면 우리 로마인들은 얼마나 명료한가..

군인 1 : 최고의 신 주피터, 그 아래에 전쟁의 신 마로스가 있고

군인 2 : 사랑의 신 비너스는 얼마나 또 아름다운가!

(일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군중들 더욱 소리를 높여)

군중(합창) : 으하하하, 우리의 왕이라고? 저자가 우리의 왕이라고?

저자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 하다니. 경배를 받으시오. 그대 이스라엘 왕이시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인 2 : 일어나지 못해? 네 십자가니까 지고가! 저 강도들 처럼!

(예수가 십자가를 지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 무게에 눌러 다시 쓰러지고 만다)

군인 1 : 더 이상 도저히 못 가겠는데?

이봐! 네가 저 사람 십자가 대신 져!

네가 메고 채네들 뒤를 따르란 말야!

군인 2 : 해골 골짜기, 골고다로 간다!

(시몬, 얼떨결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맡아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행렬이 제단에 다다르는 순간 암전되고 음악이 멈춘다)

간주곡 1

<제 4장>

시몬 : 내가, 그의 십자가를 졌었네. 그들이 그의 십자가를 내 어깨 위에 놓았네.

그 이전까지는 그와 나 상관이 없었네.

그날 나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지. 인파속에 휩쓸려 있을 때에,

‘이봐! 네가 이사람 십자가 대신 져라! 네가 대신!’

그들이 그의 십자가를 내 어깨 위에 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의 십자가를 졌었네.

골고다까지 날랐네. 그리고 나는 보았네. 십자가에 달린 그가 기도하던 모습을.

거기서 내가 들었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함이니이다.’

레아 : 무엇을 그리 곰곰이 생각해 시몬!

하고한날 왜 이러지 당신? 벌써 몇 주째. 왜 이러고 있을까!

시몬 : 그래,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바로 그들이 외쳤네.

‘그가 죽음을 깨고 부활했다. 살아나 우리에게 나타나셨네. 사셨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레아 : 그는 온 나라를 소요케 한 사람. 백성들의 질서를 온통 흔들어 놓았지만,

그는 죽었어! 그는 이제 죽었어!

그런데 또 다시 소요를 일으키고 있네.

시몬 :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레아 : 바로 그를 따르던 자들이 온 예루살렘 돌며 떠돌고 있네.

‘그가 부활했네. 다시 사셨네!’

하για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창피를 면할 테니까.

레아 : 범죄자로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누가 그를 보았나?

시몬 :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네. 나단도 미리암도 굳건히 믿고 있잖아?

레아 :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고? 그들은 보지 못했어. 말로만 전해 들었을 뿐.

시몬 : 미리암도 굳건히, 굳게 믿고 있어.

레아 : 예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더군다나 그 사건은 이미 몇 주간이 지난일.

시몬 : 당신에게도 나단과 미리암이 얘기 했잖아.

레아, 시몬 : 그 도마의 얘기.

시몬 : 열두 제자 중 하나였지만, 그 자리에는 그는 없었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얘기 했네.

‘나는, 그때야 믿을 수 있다. 그 손의 못 자국 상처에 내 손을 직접 넣어

그 옆구리 상처를 만져본 후에 믿겠노라.’

그때 예수 거기 나타나 도마에게 말했다.

‘여기, 내 손과 옆구리. 네 손으로 만져 보아라.’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더욱 복이 있으리라.’

이 모든 얘기를 그저 지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레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고!

레아 : 이제 그만! 그만 생각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내일이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첫 번째가 될 거야. 그 새로운 율법에 승복하는 사람으로는.

시몬 : 새로운 율법은 우리의 모든 율법을 오직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했네.

레아 : 사랑의 율법?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지만 시몬!

우리는 평범한 서민들이야. 당신이나 나나 우리들은 서기관이 아니야.

그저 매일매일 일이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네.

매일 또 매일 그의 율법을 지키며 사네.

시몬!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평범한 서민일 뿐. 당신이나 나나.

힘든 세상 우리가 사는 일도 중요하잖아.

시몬 : 그런데 내가 그의 십자가를 날랐어.

레아 : 그래, 당신이 그의 십자가 대신 졌었지.

시몬 : 대신 날랐네. 그의 십자가.

레아 : 로마 병정이 당신에게 강제로 시켜서 십자가를 날랐네.

당신은 그일 때문에 몇 날 몇 주 이렇게 끌려 다니고 있어.

시몬 : 그의 십자가.

레아 : 시몬! 제발 정신 차려!

만약에 그 얘기. 예수의 얘기에 뭔가 있다면 우리도 알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얘기가 저들이 꾸며낸 얘기라면. 이대로 살아가세.

우리 백성은 어차피 수많은 일 겪으며 살아남았네.

<제 5장>

(나단, 미리암 등장. 서둘러 시몬, 레아가 다가선다)

나단 : 시몬! 자네는 너무 일찍이 시장에서 나갔더군.

미리암 : 시몬, 레아! 당신들도 그 광경 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나단 : 그 놀라운 진동소리 못 들었지?

미리암 : 굉음이었네. 태풍 같은 소리. 그 소리.

나단 :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도망을 쳤네.

미리암 : 뭉쳐 있었지. 바로 그때.

나단 :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했네.

미리암 : 놀라워라!

미리암, 나단 : 모두들 자기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네. 놀라워라!

나단 : 비데 메테 엘람말로.

미리암 : 메소포타미아. 그들 주민들 말로.

나단 : 유대 가바도기아. 그들 주민들 말로. 본도와 아시아.

미리암 : 브르길라 이집트 사람들이.

나단 :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사람들이.

미리암 : 로마 그레테.

나단 : 아라비아 사람들이.

미리암, 나단 : 모두가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네.

나단 : 제자들이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 얘기 한 것을.

그러자 사람들 모두 두려워, 이것이 무슨 얘기냐. 어찌 할 바 몰랐네.

미리암 : 어떤 자들은 비웃었어. 그들이 술에 취한 거라고.

시몬 : 그럴 수 있지. 그때 술에 취한 건 아니었나.

레아 : 혹시 술에 취한 건 아니었나.

미리암, 나단 : 절대로.

레아 : 그러면,

미리암 :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말씀하셨네.

레아 : 성령이?

미리암 :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 주신다. 예수 약속했었네.

시몬 : 성령을?

나단 : 그래, 오늘 그 진동과 함께.

미리암 :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미리암, 나단 :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했네.

레아, 시몬 : 성령으로?

나단 : 베드로가 백성들 앞으로 나왔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 일을 증언할 수 있노라.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를 높이셨고,
그 높임 받은 자,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미리암 : 하나님이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메시아 주님으로 세우셨네.

나단 : 회개하라.

미리암, 나단 :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들의 죄 용서 받기 위해.

레아, 시몬 : 죄를 용서 받으라고? 왜?

시몬 : 그래서?

미리암, 나단 : 엄청난 무리가 나아와 엎드려 세례를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몬 : 엄청난 무리라고?

미리암 :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었다오.

레아 :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미리암 :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수효가 늘고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든 것을 모두가 나눠 갖네.

레아, 시몬 : 모두가? 함께 나눠? 어떻게 그런 일이.

나단 : 나는 부자였네. 제법 부유한 상인 아니었나?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팔았다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됐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미리암, 나단 : 함께 나누는 것일세. 우리가 나누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재산일세.

나단 : 시몬!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나?

그대가 가진 것 팔아 가난한자 구제해보게나 자네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리라.

레아 : 하하하, 하늘이라고?

여기 이 땅위의 확실한 소유를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그 무엇과.

미리암 :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네. 당신들 소유를 헤아릴 날, 그날이.

시몬 : 하하, 마지막 날이라?

레아 :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내일쯤 그 말이 바뀐다면?

우리 소유는 확실한데.

시몬 : 그럼 확실하고말고.

레아 : 달라지는 모든 것은 불확실한 것이네.

시몬 : 불확실한 것이지. 우리도 가난한자 돌보고 제법 그들을 구제하네.

레아 : 그런데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거져주고, 우리의 소유를 바꾸라니.

알지도 못하는 불확실한 것과.

레아, 시몬 : 말도 안 되는 소리.

시몬 : 절대로.

레아 : 더군다나 일단 기다려봐야지요!

시몬 : 당연한 얘기. 아직 시간은 충분해. 서두를 필요가 없네.

미리암 : 레아!

미리암, 나단 :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대들을 부르시네.

레아, 시몬 : 우리도 아는 얘기.

미리암, 레아, 나단, 시몬 : 너희 주 하나님. 사랑하고,

레아 : 온 마음과,

레아, 시몬 : 너희 목숨과,

미리암, 레아, 나단, 시몬 : 모든 뜻 힘을 다해. 또 너희의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레아 : 그것은,

레아, 시몬 : 새로운게 아니야. 이미 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시몬 : 이미 알고 있는 것.

미리암 : 써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계명은.

나단 : 써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사랑의 계명은.

미리암, 나단 : 그대로 살아가는 것.

레아, 시몬 : 알고 있네.

미리암, 나단 : 예수가 친히 그렇게 살았네.

레아, 시몬 : 예수가?

미리암, 나단 : 그는 메시아! 다시 오시리라!

레아, 시몬 : 그가 다시와?

미리암, 나단 : 영광 중에 오시리라.

레아, 시몬 : 영광 중에?

미리암, 나단 : 세상 끝날에!

미리암 : 깨어 있으라.

미리암, 나단 : 준비하라 때가 이르렀다오.

레아, 시몬 : 우리가 왜? 우리는 깨어있고, 언제고 언제라도 준비하면 돼!

레아 : 다행히도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간주곡2

<제 6장> 시몬의 꿈

(시몬의 꿈속에서 몽환적 분위기에 잠을 나르고 있는 노예들의 무반주 합창이 시작된다)

군중(남성합창) :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 오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우리를 구해 주실 이.

오! 우리의 이 괴롭 모두 떨쳐줄 능력의 승리자여. 우리에게 어서 오려마. 오라.

시몬 : 내가 지고 간 그의 십자가. 그것도 이런 삼나무였지. 솔로몬 전을 짓기 위해 나르네.

나는 내 집이 자랑스러워. 바로 이 목재로 저곳에 솔로몬 전을 짓기 위한 것이기에.

때로는 다리가 무겁고 어깨도 아파오지만. 오! 그 성전은 얼마나 찬란할까?

솔로몬이 친히 세우고 있으니.

내 옆에 저들 나와 함께 걸어도 저들은 지금 왕을 저주하고 있네.

하기야 강제로 끌려왔다고. 다윗 왕 그의 노예들이니까 불만투성일 수밖에.

다윗 왕 그는 솔로몬의 아버지. 피투성이 전쟁들을 이겨낸 승리자였네.

저기 저것 봐! 아직도 원망뿐이네.

무서운 감독자들 눈을 피해서 저렇게 매정한 감독자들 채찍 아래서도.

군중(남성합창) :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 오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우리를 구해 주실 이.

오! 우리의 이 괴롭 모두 떨쳐줄 능력의 승리자여. 우리에게 어서 오려마. 오라.

(노예들, 서서히 퇴장하고 시몬 홀로 남고 잠시 후 솔로몬 왕이 등장한다)

시몬 : 그럴수록 감독자들은 눈을 부릅뜨며, 때리고 소리치며 서둘렀었네.

마침내 세워지네. 저 찬란한 솔로몬 대성전이.

저기 솔로몬 왕이네. 능력과 지혜의 왕, 솔로몬 대왕.

솔로몬 : 이 거대한 전을 주님 위해 지었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일꾼들이 모였었네. 온 나라 백성들. 삼천 명 감독자들이 그들을 부렸다.

팔만 명이 채석장에서 돌을 날랐고, 칠만 명 일꾼들이 짐을 날랐네.

이 거대한 전을 주님위해 지었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 당신을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있으리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당신을 모실 수 없을 것을.

이렇게 작은 전이 감당하리오. 내가 지은 이 전이.

그러나 우리들의 간구 들으사, 당신의 눈을 여시사,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당신의 이름 알게 하소서.

이 거대한 전을 주님 위해 지었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어두워지며 솔로몬 왕이 퇴장하고 꿈 장면에서 현실로 다시 바뀐다)

시몬 : 내가 나지고간 그의 십자가, 그것도 삼나무 재목이었지. 그것도.

나는 자랑스러워. 들보를 나르고, 또 날랐네. 그 찬란한 하나님 거처 위해.

그런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제 7장>

군중(합창) : 온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 전하라. 저들로 나의 제자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세상 끝 날까지.

오이필로스 : 그래, 세상 끝 날이 가까왔다고 저들이 외치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벌써 몇 년째 같은 소리. 기다리고만 있네.

다시 온다고, 그가 영광의 메시아로 다시 온다고.

잘 모르겠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데.

나야말로 세상 떠돌이.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서 내가 듣고 본 놀라운 일이 있었네.

사울의 얘기. 예수 공동체를 잔인하게 핍박을 하던 그였지요.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그가 바울로 변했네. 놀랍도록 열심 있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오.

군인2 : 비상? 또 무슨 일이야!

군인1 : 우리 중대장이 피습을 당했어!

군인2 : 뭐라고? 중대장이 피습 당해?

군인1 : 이런 대낮에, 그것도 대로상에서!

군인2 : 범인은?

군인1 : 튀었다!

군인2 : 어느 쪽이야? 빨리 가 봐야지!

오이필로스 : 또 사건이로군. 매일 테러야. 로마주둔군에게.

누명은 언제나 예수 공동체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언제나 재판 인도는 잔혹한 형벌로 매듭짓네.

그렇지만 예수 공동체는 날마다 그 수효가 늘어나고 있다오.

이방인들의 모임도 마찬가지로. 나도 한번 가보았죠. 안디옥 그곳에.

그 자리 함께 했었네.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웃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네.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이방인 향해 간다.’

그때 내가 나를 보았네. 유대인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저 사람들 또 다투게 될 텐데.

시몬 : 말도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우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이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일.

만약에 예수를 살렸다면 그것도 유대인을 위한 것이야.

혹시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 또한 우리들의 메시아야.

나단 :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자네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혹시 세례를 받을 생각이 있나?

시몬 : 세례를 받았던 아니던 간에 나는 유대인.

미리암 : 그는 구세주 우리들의 메시아! 영광중에 다시 오시리.

시몬 :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기다리고 바라던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야.

나단 :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시몬 : 바로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방인들도 똑같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도 없이. 할례도 없이 예수 공동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택됨은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돼! 율법 없이는 끝내 이방인. 계속 불결해.

오이필로스 : 물인정한 말투로군 시몬!

나 또한 바울에게 들었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시몬 : 하지만 자네야 말로 그리스 이방인!

오이필로스 : 맞아, 그리스 이방인이지.

당신처럼 이방인들을 불결히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했네.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 후로 사도들은 매일 체험한다네.

이방인의 심령 위에도 성령이 임재하심을.

시몬 : 성령이?

미리암, 나단 :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오리필로스 : 시몬! 나는 보았네. 그의 십자가 메고 나르던 그대 모습을.

비록 강요였지만 그의 십자가 지고 날랐네.

시몬 : 골고다까지.

미리암 : 베드로와 바울이 전파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 그의 사랑을.

나단 : 모든 율법이 그 안에 있네.

미리암, 나단 :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온 나라 모든 백성 사랑하라는.

미리암 : 새 율법이.

미리암, 나단 : 그 안에 있네.

시몬 : 그런데 이게 뭐지? 뭔가 타는 냄새 아냐?

미리암, 나단 : 그래, 무언가 타는 냄새야!

오리필로스 : 로마군 중대장을 쳐 죽였어! 아마도 지금쯤은 분명히 살인자를 찾아냈을 거야.

시몬 : 그리고 그 방화 횡불뭉치를 범인 집에 또 던졌겠지! 망할 놈의 로마인들!

오리필로스 : 로마 녀석들!

나단 :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 이웃 사랑을.

미리암 : 살인범도 마찬가지로.

시몬 : 이웃 사랑! 입술로야 쉽고말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인가?

결국 로마인까지 가야 하는가?

미리암, 나단, 오리필로스 : 그대를 필요로 하는 이. 그가 그대 이웃이래요.

레아 : 로마군 중대장이 구타를 당해 죽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범인이 당신네 집안으로 도망을 쳤네. 결국 방화용 횡불을.

미리암 : 우리 집에?

나단, 오리필로스, 시몬 : 안 돼!

레아 : 범인은 당신들의 공동체 소속이 아니라지만.

미리암 : 우리 집이, 우리 집을 어찌하나.

오리필로스, 시몬 : 망할 놈의 로마인들.

미리암 : 어찌하나. 우리의 집.

레아 : 어떻게 하나. 그대의 집.

시몬 : 그대의 집.

군중(합창) : 우리 열조가 의지하였고, 의뢰함으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나의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나단 : 주신이라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군중(합창) : 열방의 족속들이 돌아오리라. 마침내.

그들이 마침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그에게 기도하리. 열방의 족속들이 돌아오리라.

시몬 : 내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그가 풀어주셨네. 골고다에서. 험한 십자가, 거기 누웠네.

나단, 시몬 :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네.

시몬 : 죽음에 머물지 않고,

나단, 시몬 : 사셨도다.

군중(합창) : 사셨도다.

시몬 : 그 어느 것도 예전과 같지 않네.

나단! 미리암! 이제는 우리 집이 당신들의 집이야.

레아 : 그 어느 것도 예전과 같지 않네.

우리 함께 집을 지어요. 새로운 집을.

군중(합창) :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네.

오이필로스 : 인자 예수.

군중(합창) : 인자 예수.

오이필로스 : 그 어느 것도 예전과는 같지 않네. 나도 함께 집을 짓게 해주오.

군중(합창) :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우리 주님 성전을 세우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미리암, 레아, 나단, 오이필로스, 시몬 : 이 땅 위에 오셨네.

주님의 나라가 나의 맘속에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군중(합창) : 주님의 나라가 나의 맘속에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모두 함께 : 아멘.